

정책자료 94-05

轉換期の 臺灣經濟

— 産業構造調整을 중심으로 —

柳在元

1994. 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轉換期的 臺灣經濟

— 産業構造調整을 중심으로 —

柳在元

1994. 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UR協商의 妥結을 계기로 國際競爭力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말 이후 韓國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 및 수출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율의 둔화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민간기업이나 정책당국 모두가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는 臺灣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및 지가상승으로 국내경영여건 및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했고,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타격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臺灣과 韓國은 모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조직이나 전략산업의 성격면에서 兩國經濟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臺灣과 韓國經濟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本 研究는 臺灣의 産業構造調整 문제를 중심으로 轉換期에 처해있는 臺灣經濟의 실상을 조명하고 있다. 과연 臺灣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の内容은 무엇이며, 臺灣政府의 産業 및 貿易政策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臺灣經濟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피상적 관찰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에 비추어 볼 때, 本 研究가 政策當局, 學界 및 業界의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쁜 가운데에서도 本 研究를 맡아 수고한 柳在元 박사께 감

사드린다. 또한 草稿를 읽고 助言을 해 주신 崔秀雄 전문위원 및 자료수집을 성
심껏 도와준 安泰慶 사서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本 研究報告書의 모
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을 뿐 本 研究院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2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9
1.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趨勢	9
(1) 經濟成長率의 低下	9
(2) 內需의 成長寄與度 增加	10
(3) 製造業 成長의 鈍化	11
2. 國際貿易 및 國際收支 動向	12
(1) 經常收支黑字의 減少	12
(2)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와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	14
(3) 對先進國交易比重의 減少 및 對中國交易 活性化	15
II. 臺灣 產業構造調整의 進展狀況	19
1. 製造業의 構造變化	19
(1) 重化學工業中心의 產業構造改編	19
(2) 消費財 產業의 萎縮 및 投資財 產業의 成長	22
2. 輸出 및 輸入의 構造變化	23
(1) 重工業 輸出比重의 增加	23
(2) 加工貿易構造의 持續	25
III. 臺灣 產業·貿易政策의 展開와 評價	31
1. 產業構造高度化 推進의 背景	31
(1) 國內經營與件의 惡化	31
(2) 輸出競爭力의 弱化	33
2. 臺灣 產業·貿易政策의 方向 및 課題	35
(1) 研究開發 및 產業構造調整 促進	35

(2) 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投資環境造成	36
(3) 市場開放 推進	37
(4)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促進	38
3. 臺灣 產業·貿易政策의 評價	39
(1) 民間企業의 調整誘導	39
(2) 輸入自由化와 競爭促進	40
(3) 海外直接投資와 產業構造調整 促進	44
IV. 展望 및 示唆點	47
1. 展望	47
2. 示唆點	52
〈參考文獻〉	57
〈附 錄〉	61

〈表目次〉

〈表 1〉 臺灣의 經濟成長率, 物價上昇率 및 失業率 推移	9
〈表 2〉 內需의 成長寄與度 推移	10
〈表 3〉 製造業의 成長 推移	12
〈表 4〉 臺灣의 國際收支 推移	13
〈表 5〉 臺灣의 直接投資 推移	15
〈表 6〉 臺灣의 地域別 貿易 推移	16
〈表 7〉 製造業의 業種別 生産指數 推移	20
〈表 8〉 製造業 附加價値의 業種別 構造變化 推移	21
〈表 9〉 製造業의 用途別 生産指數 推移	23
〈表 10〉 製造業 業種別 輸出額, 輸出價格 및 輸出物量 推移	24
〈表 11〉 輸出入 商品의 要素集約度 變化推移	26
〈表 12〉 重工業 및 하이테크 製品의 輸出入 比重 推移	27
〈表 13〉 輸出入商品의 用途別 構造變化 推移	28
〈表 14〉 臺灣의 産業別 經營成果 推移	31
〈表 15〉 臺灣 製造業의 經營惡化 要因	33
〈表 16〉 臺灣의 輸出市場占有率 推移	34
〈表 17〉 臺灣 製造業의 輸出競爭力 및 決定要因 推移	34
〈表 18〉 臺灣의 貿易自由化 推移	37
〈表 19〉 臺灣 製造業體의 經營戰略 (1991-1994)	40
〈表 20〉 製造業 業種別 關稅率, 輸入浸透度 및 輸出特化度 推移	41
〈表 21〉 關稅引下(1986-88)와 主要貿易關聯指標과의 相關係數	43
〈表 22〉 海外直接投資와 主要産業關聯指標간의 相關係數	44
〈表 23〉 製造業 部門의 海外投資와 産業構造調整	45
〈表 24〉 國內資本形成과 直接投資規模	48

〈附表 目次〉

〈附表 1〉 外國人直接投資 業種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63
〈附表 2〉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64
〈附表 3〉 海外直接投資 業種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65
〈附表 4〉 海外直接投資 地域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66
〈附表 5〉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業種分析 (1952-92 許可基準 累計)	67
〈附表 6〉 臺灣 主要重工業의 生産指數 推移	68
〈附表 7〉 臺灣의 主要品目別 輸出入 推移	69
〈附表 8〉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生産性 및 利潤率 推移	70
〈附表 9〉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經營惡化 要因	71
〈附表 10〉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經營戰略 (1991-1994)	72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1.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趨勢

(1) 經濟成長率의 低下

대만경제는 197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9.8%를 기록, 아시아 신흥공업국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성장율은 6.7%로 하락하였으며, 1986-87 기간중 소위 '3低'호황기를 제외하면 低速成長 趨勢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992년 및 1993년에는 성장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表 1> 참조).

그러나 대만의 경우 연평균 6-7%의 성장율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最大値라는 면에서 잠재적 성장율에 가깝다고 하

<表 1> 臺灣의 經濟成長率, 物價上昇率 및 失業率 推移

(단위: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P
국내총생산 성장율	11.6	12.3	7.3	7.6	4.9	7.3	6.5	6.1
민간소비	7.2	11.2	13.1	13.0	7.1	6.3	9.4	9.0
정부지출	4.2	8.5	9.4	11.1	12.9	7.5	4.0	3.5
투자	10.1	18.6	14.6	16.5	6.7	6.8	13.7	9.0
수출	27.6	18.9	5.7	5.5	1.3	12.6	6.3	10.2
수입	21.9	28.0	18.6	10.5	5.1	14.9	12.1	13.0
소비자물가지수(CPI)	0.7	0.5	1.3	4.4	4.1	3.6	4.6	2.9
도매물가지수(WPI)	-3.3	-3.3	-1.6	-0.4	-0.6	0.2	-3.1	2.0
실업율	2.66	1.97	1.69	1.56	1.67	1.51	1.51	1.38

資料 : 臺灣 行政院, 「中華民國·臺灣地區 國民經濟動向統計季報」, 1993.8.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1993. 10.

졌다. 대만의 실업율은 1986년 2.7%에서 1993년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만의 도매물가지수는 안정위주의 통화관리정책, 국제 1차산품가격의 하락 및 대만화폐의 平價切上 등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서비스 요금 및 식료품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최근 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內需의 成長寄與度 增加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주도적 역할은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1988-90 기간중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율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중국본토와의 교역활성화, 특히 중국본토에 진출한 자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수출의 成長寄與度 역시 상당히 회복되었다.

수출증가의 둔화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해외수요, 즉 純輸出의 성장기여도는 負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만의 경제성장은 內需에 의존하고 있다 (<表 2> 참조).

<表 2> 內需의 成長寄與度 推移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P
국내수요	45.4	97.8	163.3	123.2	134.6	102.9	139.5	109.9
민간소비	31.0	43.6	84.6	85.3	78.0	50.5	73.3	67.5
정부소비	5.7	10.3	18.3	21.2	40.1	15.7	10.7	0.6
투자	8.7	43.9	60.5	16.7	16.4	36.5	55.5	41.7
해외수요	54.6	2.2	-63.3	-23.2	-34.6	-2.9	-39.5	-9.9
수출	120.6	89.2	47.5	44.1	15.8	100.1	59.5	81.5
수입	-65.9	-87.0	-110.8	-67.3	-50.4	-103.0	-99.1	-91.4

註 : 성장기여도는 해당변수의 증가분을 국내총생산 증가분으로 나눈 백분율로 정의.

資料 : 대만 행정원, 「中華民國·臺灣地區 國民經濟動向統計季報」, 1993.8.

한편 내수증가의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보다 민간소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7-89 기간중 민간소비는 낙관적 경제전망 및 주식·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1990-91 기간 중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심리 역시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 역시 1980년대말경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3) 製造業 成長의 鈍化

최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침체와 서비스산업의 肥大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 제조업의 성장율은 산업전체의 평균성장율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0.2%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산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39.8%를 고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87년의 35.0%를 고비로 下落勢로 반전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 3차 산업은 1986-93 기간중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고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이 기간중 금융·보험 서비스산업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상업서비스 역시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한편 농업과 광산업 등 제 1차 산업의 성장율은 1990년대에 들어와 1%에도 미달하는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둔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土地 및 勞動費用의 상승에 따른 국내투자의 부진,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는 중공업 중심 제조업 성장율이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表 3〉

製造業의 成長 推移

(단위 :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P
국내총생산 성장률	11.6	12.3	7.3	7.6	4.9	7.3	6.5	6.1
1차 산업	-0.4	4.5	0.4	-1.1	0.9	0.2	0.2	0.2
2차 산업	14.5	12.4	4.8	4.5	1.3	6.6	5.7	6.9
제조업	16.0	12.7	3.6	3.7	-0.2	6.4	4.9	6.0
3차 산업	10.6	13.3	10.7	11.4	8.4	8.5	10.3	12.3
제조업부가가치/GDP	39.7	39.8	38.5	37.1	35.3	35.1	34.0	32.9
제조업고용/총고용	33.8	35.0	34.5	33.9	32.0	30.8	30.0	28.7

註 : 1986년 불변가격 기준.

資料 :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1993. 10.

臺灣 行政院, 「自由中國之 工業」, 1993.12.

2. 國際貿易 및 國際收支 趨勢

(1) 經常收支黑字의 減少

臺灣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상수지의 黑字基調가 정착되어 제 1차 및 2차 석유과동 직후인 1974-75년과 198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여 왔다.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1986-87 기간 중에는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6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대만화폐의 평가절상 및 시장개방의 압력을 가져왔으며, 1988년 미국은 대만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부여를 철회하였다.

실제로 1988년 이후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성장의 둔화 및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무역수지흑자폭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속되는 對先進國 수출부진 및 수입의 확대로 1993년에는 경상수지흑자가 70억 달러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表 4〉

臺灣의 國際收支 推移

(單位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P
경상수지	16,277	17,999	10,177	11,384	10,769	12,015	8,184	6,810
무역수지	16,917	20,285	13,834	16,202	14,928	15,754	12,797	10,760
수 출	39,552	53,297	60,319	65,874	66,823	75,535	80,723	89,060
수 입	-22,635	-33,012	-46,485	-49,672	-51,895	-59,781	-67,926	-78,290
서비스수지	-2,197	-3,653	-4,819	-6,119	-7,331	-7,872	-4,460	-3,770
장기자본수지	-1,583	-2,585	-6,273	-7,761	-6,601	-2,827	-3,100	-3,710
직접투자수지	261	11	-3,161	-5,347	-3,913	-583	-2,620	..
간접투자수지	69	-371	-1,711	-902	-1,006	45	-1,050	..
단기자본수지	8,520	12,983	-5,182	-4,369	-8,097	60	-3,450	2,320
종합수지	23,322	28,092	-1,392	-780	-3,918	9,659	1,367	5,420
외환보유고	47,622	79,441	79,431	79,052	78,061	88,325	95,850	100,670

資料 : The Central Bank of China, *Balance of Payments*, 1993. 10.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1993. 10.

경상수지의 흑자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수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87년 경상수지흑자와 이로 인한 통화증발 및 불가상승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환규제에 대한 대폭적 완화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은행에 의한 외환집중제가 폐지되고 기업이나 개인이 일정금액이하일 경우 외환을 자유롭게 보유, 송금 또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직접투자수지는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1988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었다. 해외간접투자 역시 198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통계적 오차 및 누락을 합한 綜合收支를 지칭하는 국제수지는 1988-90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1987년 79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외환규제의 완화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1년에는 883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 1,0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와 海外投資의 活性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수지표상의 직접투자수지는 1988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었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9년 16억 달러를 고비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해외투자액수는 1986년에는 6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7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2년의 경우 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허가기준에 따른 직접투자 흐름은 다소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臺灣의 해외직접투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1년경에 16억 달러에 달한 후 1992년에는 急減勢로 반전되었다. 한편 臺灣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9년 548건 24억 달러에 달한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허가기준과 국제수지기준과의 차이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이는 외환규제완화로 실제 투자의 상당부분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부진은 제조업부문 투자의 절대적 감소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증가의 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附表 1> 참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음식료품, 방직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물론, 화학 및 석유화학 등 중공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던 일본의 투자가 최근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밖에도 미국 및 유럽의 투자도 감소추세이다 (<附表 2> 참조).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뿐 아니라 무역업, 금융·보험업과 같은 서비스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업종별 구조를 보면 전기전자 및 음식료품, 방직, 종이 및 피혁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진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화학 및 기초금속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附表 3> 참조).

최근 대만의 對開途國投資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對中國투자는 199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는 금액이나 건수면에서 對아세안투자를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附表 4> 참조). 또한 제 3국시장보다 中國內需市場을 겨냥한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表 5〉 臺灣의 直接投資 推移 (單位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허가기준							
유입	770.4 (286)	1418.8 (480)	1182.5 (527)	2418.3 (548)	2301.8 (461)	1778.5 (389)	1461.4 (411)
유출							
전체(중국제외)	56.9 (32)	102.8 (45)	218.7 (109)	931.0 (153)	1552.2 (315)	1656.0 (364)	887.3 (300)
중국*	601.6 (2227)	174.0 (237)	247.0 (264)
국제수지기준							
유입	326.0	715.0	959.0	1604.0	1330.0	1271.0	879.0
유출	66.0	704.0	4120.0	6951.0	5243.0	1854.0	1701.0

註 : * 제3국경유 간접투자로서 1990년 수치는 1983-1990 누계. ()은 건수.

資料 : The Central Bank of China, *Balance of Payments*, 1993. 10.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對外 技術合作 對大陸投資 統計月報」, 1993. 8.

(3) 對先進國交易 比重의 減少 및 對中國交易의 活性化

臺灣의 대외무역은 전통적으로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 크게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여타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아세안 등 동아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對先進國교역의 감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대만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반영하며, 최근에는 선진국 경기의 침체가 加勢되었다고 할 수 있다. 對美

國 수출이 대만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47.7%에서 1993년 28.6%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對日수출 비중은 1986년 11.4% 및 1992년 10.9%를 기록하여 대만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表 6> 참조).

<表 6>

臺灣의 地域別 貿易 推移

(單位 : 백만달러, %)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6	1992	1986	1992	1986	1992
아시아	10338.2(29.2)	34800.3(42.7)	10768.3(52.8)	33597.2(46.7)	-430.1	1203.0
일본	4559.8(11.4)	8893.7(10.9)	8754.7(34.1)	21766.6(30.2)	-3694.9	-12873.0
홍콩	2921.3(7.3)	15415.0(18.9)	378.7(1.6)	1781.4(2.5)	2542.7	13633.6
싱가폴	930.9(2.3)	2505.2(3.1)	339.9(1.4)	1694.9(2.4)	591.2	810.3
한국	351.6(0.9)	1150.4(1.4)	328.7(1.4)	2300.9(3.2)	22.9	-1150.5
아세안	1204.8(3.0)	5647.8(6.9)	1173.7(4.9)	4366.2(6.1)	31.1	1281.6
유럽	4774.4(12.0)	13928.9(17.1)	3235.9(13.4)	12474.6(17.3)	1538.5	1454.3
EU	4324.4(10.8)	12373.4(15.2)	2746.1(11.4)	9473.4(13.2)	1578.4	2899.0
북미	20286.1(50.9)	25217.8(31.0)	5918.2(24.5)	15153.8(21.0)	14367.8	8268.3
미국	19013.9(47.7)	23571.6(28.9)	5432.6(22.5)	14113.8(19.6)	13581.3	7800.6
기타	4462.8(7.9)	7523.3(9.3)	4259.1(9.3)	10781.2(1.5)	203.8	-1462.1
합계	39861.5(100)	81470.3(100)	24181.5(100)	72006.8(100)	15680.0	9463.5

資料 : 臺灣 財政部, 「中華民國·臺灣地區進出口統計月報」, 1993.10.

이러한 맥락에서 對EU 수출의 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EU는 1987-91 기간중 대만의 수출대상국중 제 2위로 부상하여 일본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에는 홍콩에 이은 제 3위국의 위치로 밀려났으나, 대만 전체수출의 15.2%를 점하고 있다. 또한 대만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제 3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대만과의 교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본토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주로 홍콩을 통한 間接貿易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직접교역은 아직 미미한 규모에 불과하다. 홍콩측 자료에 의하면 1992년의 경우 대홍콩 수출의 40%가 실제로는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되었으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17

며,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중 62%가 중국이 原產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중, 1993a, 참조). 이러한 중국과의 교역활성화는 대만기업의 진출에 따른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출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 臺灣 產業構造調整의 進展狀況

1. 製造業의 構造變化

(1) 重化學工業 中心의 產業構造改編

대만 제조업은 단순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공업으로의 활발한 構造轉換을 보여주고 있다. <表 7>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공업의 생산지수는 1991년의 일시적 反騰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2년에는 102.9를 기록하였다.

경공업중에도 가장 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의복, 가죽, 나무 및 축제품 등으로서 이들 업종의 생산지수는 1992년 현재 각각 65.6, 73.1 및 60.7에 불과하였다. 식료품 및 섬유산업도 생산지수가 1986년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공업의 생산지수는 1992년 157.4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 기초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송기기 분야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분류별 제조업 업종중 가장 활발한 생산증가를 보인 분야는 대부분 중공업 분야로서 鋼材 2차가공업 (219.9), 금속건축산품 및 부품 (249.89), 수송기계설비업 (218.5), 컴퓨터 (241.5), 자동차 (253.6), 오토싸이클 (253.4) 등을 들 수 있다 (<附表 6> 참조). 한편 경공업분야에서는 청량음료(221.4) 및 시멘트제품 (196.1)이 가장 활발한 성장을 보였고, 재생합성섬유(131.2), 피혁정제(135.4), 유리제품(178.1), 시멘트 (145.0), 대리석제품(131.8) 등이 겨우 제조업 평균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였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 附加價値의 업종별 구조는 생산지수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공업의 비중은 1986-92 기간중 45.4%

〈表 7〉 製造業의 業種別 生産指數 推移

업 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식품	100.0	104.6	105.8	103.5	108.6	111.8	116.2
음료·담배	100.0	105.9	111.7	123.2	138.4	151.1	149.9
섬유	100.0	104.7	94.0	97.6	92.1	98.8	96.6
의복	100.0	102.7	85.6	83.9	75.8	75.1	65.6
가죽	100.0	100.9	95.9	93.5	86.0	90.1	73.1
나무·죽	100.0	103.5	93.2	86.8	63.5	66.1	60.7
종이·인쇄	100.0	106.3	110.0	120.8	126.4	133.4	140.2
산업용 화학물	100.0	103.7	108.0	110.1	119.1	136.6	148.6
화학제품	100.0	114.8	125.7	129.1	139.8	152.5	166.1
석유정제	100.0	118.8	128.8	139.5	125.3	127.8	129.9
고무	100.0	107.7	113.1	109.3	112.7	117.1	121.3
플라스틱	100.0	113.2	118.9	116.7	107.4	111.6	107.4
비금속	100.0	106.0	110.1	115.8	117.9	121.1	130.8
기초금속	100.0	107.5	120.3	127.0	129.7	143.5	159.7
금속제품	100.0	111.5	120.0	126.6	122.4	131.9	138.1
기계장비	100.0	117.8	134.0	135.4	139.5	149.4	159.9
전기·전자	100.0	123.7	136.3	141.7	140.2	154.0	161.6
운수기기	100.0	122.8	125.2	143.9	144.1	160.5	169.8
정밀기계	100.0	114.7	131.7	147.3	145.1	152.9	148.1
잡제품	100.0	110.9	116.4	111.1	100.3	101.1	98.1
중공업	100.0	115.6	126.1	133.5	134.3	147.2	157.4
경공업	100.0	107.1	105.5	105.4	100.3	104.8	102.9
제조업전체	100.0	111.4	115.6	119.0	116.7	125.3	129.2

資料：臺灣 經濟部, 「中華民國·臺灣地區 工業生産統計月報」, 1993.10.

에서 35.2%로 감소하였고, 경공업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섬유산업 및 플라스틱 산업의 비중은 각각 10.2%에서 7.6%로, 그리고 9.7%에서 8.1%로 하락하였다.

중공업의 비중은 이와 대조적으로 55.6%에서 65.8%로 증가하였다. 중공업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분야는 숙련노동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산업으로 1986년 13.7%에서 1992년 17.1%로 증가하였으며, 이밖에도 산업용화학물, 기초금속

〈表 8〉 製造業 附加價値의 業種別 構造變化 推移

(단위 : %)

업 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식품	5.80	5.46	5.32	5.05	5.40	5.18	5.22
음료·담배	1.01	0.96	0.98	1.04	1.20	1.22	1.17
섬유	10.15	9.56	8.27	8.33	8.01	8.01	7.59
의복	2.93	2.70	2.17	2.06	1.90	1.75	1.49
가죽	2.44	2.21	2.02	1.91	1.80	1.75	1.38
나무·죽	3.52	3.28	2.84	2.57	1.91	1.86	1.65
종이·인쇄	3.56	3.40	3.39	3.61	3.85	3.79	3.86
산업용 화학물	9.16	8.54	8.57	8.48	9.35	9.99	10.53
화학제품	2.11	2.18	2.30	2.29	2.53	2.57	2.71
석유정제	5.14	5.50	5.74	6.03	5.52	5.25	5.17
고무	1.71	1.66	1.68	1.58	1.66	1.60	1.61
플라스틱	9.71	9.89	10.01	9.53	8.93	8.65	8.07
비금속	3.40	3.24	3.25	3.31	3.44	3.29	3.45
기초금속	6.67	6.45	6.96	7.12	7.41	7.64	8.25
금속제품	4.95	4.97	5.15	5.27	5.20	5.22	5.30
기계	3.16	3.35	3.67	3.60	3.78	3.77	3.91
전기·전자	13.66	15.19	16.13	16.28	16.41	16.79	17.08
운수기기	5.13	5.66	5.56	6.20	6.33	6.56	6.74
정밀기계	1.11	1.15	1.27	1.38	1.39	1.35	1.28
잡제품	4.68	4.65	4.72	4.36	3.98	3.76	3.54
제조업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경공업	45.35	43.61	41.26	39.74	38.23	37.07	35.17
중공업*	54.65	56.39	58.74	60.26	61.77	62.93	64.83
평균구성비변화분**	0.32	0.30	0.27	0.19	0.29	0.16	0.25

註: * 종이·인쇄, 산업용 화학물, 화학제품, 석유정제, 기초금속, 금속제품,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정밀기계

** 해당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분의 절대치를 평균한 수치임.

資料 : 〈表 7〉과 동일

및 운수기기업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제조업 중분류상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기준으로 최근 대만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검토하여 보면 1980년대 중반기의 조정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이후에는 속도가 떨어졌다가 1992년에 다시 중공업위주의 산업고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속도의 차이는 업종별로 수출수요의 증가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1년의 경우는 식료품, 방직, 가죽, 목제품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구조조정은 일시적으로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消費財 産業의 萎縮 및 生産財 産業의 成長

제조업의 구조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만 제조업은 최종수요재 및 생산재의 생산비중이 비슷한 형편이나 최근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92 기간중 최종수요재의 생산지수는 15.4% 증가한 반면, 생산재의 경우에는 44.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最終需要財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재의 생산은 동 기간중 68.1%의 빠른 증가를 보였으나, 消費財의 생산은 1.2%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非耐久消費財는 負의 성장을 보였으며, 내구소비재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들어와 생산이 상당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재 산업이 저조한 활동을 보인 것은 수입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가 약화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한편 자본재 및 중간투입재의 생산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본재중에서는 기초금속(293.9) 및 전기·전자(202.2)가 활발한 생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장비(157.1)는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중간투입재로서의 생

산재에 있어서는 화학제품(205.6) 및 비금속광물(216.7)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며, 전기·전자산업(183.6)의 경우에도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表 9〉 製造業의 用途別 生産指數 推移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최종수요재(46.5)	100.0	112.0	113.8	115.5	109.1	114.7	115.4
투자재(9.9)	100.0	119.5	131.2	136.9	143.0	151.6	168.1
자본재(5.8)	100.0	127.3	143.6	152.1	158.0	166.0	182.1
건설재(4.1)	100.0	108.4	113.7	115.5	121.7	131.1	148.3
소비재(36.7))	100.0	110.0	109.2	109.8	100.0	104.7	101.2
내구소비재(8.7)	100.0	119.7	122.3	126.0	107.8	117.9	117.1
비내구소비재(28.0)	100.0	107.0	105.1	104.8	97.5	100.7	96.3
생산재(42.6)	100.0	110.3	117.1	122.7	125.1	136.9	144.3
광공업용 생산재(38.2)	100.0	110.1	116.0	121.8	125.9	139.7	147.6
기타 생산재(4.4)	100.0	111.5	126.2	130.8	118.1	112.6	115.5
제조업전체(100.0)	100.0	111.4	115.6	119.0	116.7	125.3	129.2

註 : ()은 비중(%)을 지칭

資料 : 〈表 7〉과 동일

2. 輸出 및 輸入의 構造變化

(1) 重工業 輸出比重的 增加

19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은 수출구조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조업의 총수출액은 1986년 391억 달러에서 1992년 723억 달러로 1.86배 증가하였다. 이 중 중공업의 비중은 1986년 45.49%에서 1992년에는 62.24%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단일업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전기·전자의 비중은 30.44%로 급증하였다. 이밖에 산업용화학물 및 기계장비도 활발한

〈表 10〉 製造業 業種別 輸出額, 輸出價格 및 輸出物量 推移

(單位 : 백만달러, %)

업종	수출액		수출가격지수		수출물량지수
	1986	1992	NT\$기준	US\$기준	
식료품	1934.2(4.94)	2606.4(3.57)	77.43	114.35	117.94
음료·담배	13.9(0.03)	49.5(0.06)	91.17	133.86	266.03
방직	2636.0(6.74)	6722.1(9.21)	85.28	125.90	202.55
의복	4662.9(11.92)	4571.6(6.27)	93.04	142.44	68.83
가죽	1287.0(3.29)	1080.8(1.48)	95.11	138.33	60.71
나무·죽	1762.0(4.51)	1069.7(1.47)	102.12	148.43	40.90
종이·인쇄	249.5(0.64)	826.5(1.13)	92.20	137.11	241.61
산업용 화학물	782.1(2.00)	2497.6(3.42)	72.40	108.40	294.59
화학제품	698.3(1.79)	1448.0(1.98)	70.08	93.74	221.21
고무및플라스틱	3943.3(10.08)	5122.0(7.01)	93.04	138.05	94.09
비금속	791.4(2.02)	1216.8(1.67)	112.56	170.08	90.40
기초금속	702.4(1.79)	1453.2(1.99)	81.42	121.69	170.01
금속제품	2360.5(6.04)	5304.3(7.26)	108.29	166.75	134.76
기계장비	1598.4(4.09)	5731.0(7.85)	95.12	143.72	249.48
전기·전자	8909.7(22.78)	22222.3(30.44)	89.05	132.89	187.68
운수기기	1749.0(4.47)	4049.4(5.54)	119.53	178.04	130.04
정밀기계	739.9(1.89)	1925.4(2.63)	75.63	112.12	232.09
잡제품	4287.0(10.96)	5098.2(6.98)	111.59	164.99	72.08
제조업 전체	39107.4(100.0)	72994.8(100.0)	92.90	139.79	133.52

註 : 수출가격지수 및 수출물량지수 기준년도는 1986년임.

資料 : 대만 재정부, 「中華民國·臺灣地區 進出口貿易統計月報」, 1993.10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輕工業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복, 가죽제품,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의복, 가죽제품, 목제품은 절대수출액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섬유제품의 수출액은 1986-92 기간중 2.5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을 통한 對중국 간접수출이 급격히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 제조업의 수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수출의 증가를 물량 및 가격 두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제조업 전체의 수출물량은 1986-92 기간중 33.5%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輸出單價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는 39.8% 정도 증가하였으나, 대만 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인하여 자국화폐를 단위로 할 때 수출단가는 오히려 7.1% 가량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자국화폐단위 수출단가가 상승한 경우는 비금속, 금속제품, 운수기기, 잡제품 등에 불과하다.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미국달러 기준의 수출단가도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대만의 수출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 수출가격 인하를 감수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992년을 기준으로 수출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주요품목에는 인조수지 및 플라스틱재료제품 (28.3억 달러), 인조섬유봉제면사 (10.8억 달러)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사 (13.5억 달러), 니트 의류 (15.8억 달러), 신발 (16.3억 달러), 운동기구 (17.6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의류 및 신발의 비중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주요 중공업 수출품은 대부분 전기·전자제품으로서 컴퓨터 (53.6억 달러), 전기모터 및 발전기 (13.4억 달러), 무선전화 및 무선기 (29.6억 달러), 전자관 및 집적회로 (31.2억 달러), 인쇄전로(electrial printed circuit) 및 전류보호장치 (13.8억 달러) 등을 들 수 있다.

(2) 加工貿易構造의 持續

臺灣의 貿易構造變化는 생산부문에서의 産業構造變化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臺灣의 輸出構造는 점차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輸入構造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만경제가 기본적으로 加工貿易的 生産構造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臺灣의 主要品目別 輸出入 추이는 <附表 7> 참조).

우선 수출상품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勞動集約도가 높은 상품의 수출비중은 1987년 47.9%를 고비로 1992년에는 39.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勞動集約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는 동 기간중 1987년 14.9%에서 1992년 22.1%로 증가하였다.

<表 11> 輸出入 商品의 要素集約度 變化推移

(단위 : %)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			에너지집약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수출												
1986	47.0	36.9	16.1	22.9	49.4	27.7	18.3	33.7	48.0	11.8	46.6	41.6
1987	47.9	37.2	14.9	22.4	50.5	27.1	19.4	35.2	45.4	10.8	45.4	43.8
1988	46.3	36.8	16.9	23.5	51.5	25.0	22.6	36.9	40.5	12.4	43.1	44.5
1989	43.4	37.8	18.8	26.6	50.7	22.7	24.2	38.9	36.9	13.1	45.3	41.6
1990	41.0	38.3	20.7	28.9	50.5	20.6	26.7	38.6	34.7	13.8	45.4	40.8
1991	40.1	38.8	21.1	29.8	51.0	19.2	27.2	38.5	34.3	13.9	45.8	40.3
1992	39.2	40.3	20.5	29.3	53.0	17.7	29.5	38.5	32.0	13.7	45.4	40.9
수입												
1986	34.5	19.2	46.3	48.6	34.9	16.5	55.5	24.0	20.5	25.4	28.9	45.8
1987	33.8	22.7	43.5	45.6	39.2	15.2	55.9	25.7	18.4	23.9	32.6	43.5
1988	30.5	29.0	40.5	42.7	43.6	13.7	60.5	23.2	16.3	23.4	39.2	37.4
1989	32.8	23.6	43.6	46.6	39.9	13.5	57.7	25.4	16.9	24.4	36.3	39.3
1990	33.2	23.3	43.6	46.4	39.8	13.8	57.5	25.8	16.6	23.7	35.5	40.9
1991	34.1	21.5	44.4	47.3	40.0	12.7	57.3	26.5	16.2	25.5	34.5	40.0
1992	34.0	23.1	42.9	46.1	41.6	12.3	56.5	27.4	16.1	22.8	38.1	39.0

資料 : <表 10>과 동일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상품의 資本集約度 및 技術集約度は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수출상품의 비중은 1986년 22.9%에서 1992년 29.3%로 증가하였으며, 기술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비중 역시 18.3%에서 29.5%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공업 수출과 함께 하이테크제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表 13> 참조). 전체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27.6%에서 1992년 37.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구조의 고도화와는 별도로 대만의 수입구조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만의 수입은 1986년 184억 달러에서 1992년 53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중공업 및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은 각각 61.2%에서 69.0%로, 그리고 44.5%에서 48.4%로 증가하였다. 1992년의 경우 제조업 전체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산업용 화학물 (10.9%), 기초금속 (16.3%), 기계장비 (13.2%), 전기·전자 (19.6%), 수송장비 (11.41%)을 들 수 있다.

輸入의 요소집약도별 구조가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臺灣의 産業構造高度化의 限界를 보여준다. 1992년 경우 전체수입에서 기술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56.5%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역시 46.1%에 달하였다. 기술집약도나 자본집약도가 낮은 수입제품의 비중은 모두 20%에 미달하고 있다.

<表 12> 重工業 및 하이테크 製品의 輸出入 比重 推移

(단위 : %)

	수 출		수 입	
	중공업 제품	하이테크 제품	중공업 제품	하이테크 제품
1986	35.6	27.6	61.2	44.5
1987	37.9	30.0	65.1	45.5
1988	42.8	33.7	71.1	44.4
1989	44.5	33.9	69.0	45.1
1990	46.7	35.9	67.6	46.5
1991	46.7	36.3	68.1	46.4
1992	49.1	37.9	69.0	48.4

資料 : <表 10>과 동일

〈表 13〉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전체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산업이나 기계산업의 경우에도 핵심기술 및 주요부품을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

〈表 13〉

輸出入商品の 用途別 構造變化 推移

(단위 :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농림어업	1.7	1.4	1.6	1.0	0.8	0.9	0.9
식료품	4.7	4.5	3.7	3.6	3.5	3.6	3.3
음료·담배	0.0	0.0	0.0	0.0	0.0	0.0	0.0
광 물	0.1	0.1	0.1	0.1	0.1	0.1	0.0
중간산품	33.4	33.4	36.4	40.0	44.4	46.5	48.5
가 공	8.7	7.4	6.9	8.7	9.0	9.5	9.4
비가공	26.8	26.0	26.5	27.7	31.0	34.9	39.1
비내구소비재	35.3	33.3	29.7	27.4	23.7	22.0	19.8
내구소비재	11.7	11.9	11.2	10.3	8.9	8.5	8.0
기계설비	10.8	13.1	15.4	15.5	16.3	16.1	17.2
운수장비	1.9	1.9	1.5	1.9	2.1	2.1	2.0
수 입							
농림어업	9.1	7.8	6.5	6.0	5.4	5.2	4.6
식료품	3.0	2.5	2.4	2.8	2.8	2.7	2.6
음료·담배	0.2	0.6	0.5	0.5	0.5	0.5	0.5
광 물	12.2	10.1	7.3	7.9	9.0	8.2	7.1
중간산품	54.2	55.2	58.7	54.0	51.7	55.0	53.2
가 공	29.7	30.9	36.5	31.4	27.5	30.1	27.4
비가공	24.5	24.3	22.2	22.6	24.2	24.9	25.8
비내구소비재	2.6	2.6	2.6	3.2	3.8	3.8	4.2
내구소비재	4.0	4.2	4.6	4.2	5.1	4.7	5.1
기계설비	13.0	14.2	13.6	15.4	16.4	15.3	15.7
운수장비	1.8	2.5	3.6	5.8	5.1	4.3	6.4

註 : 세계은행의 10대산업부문 분류

資料 : 〈表 12〉와 동일

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출방식에 있어서도 OEM방식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이 기존의 組立加工型 輸出基調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국내조달을 위한 제 2차 輸入代替의 추진이 대만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Ⅲ. 臺灣 産業 · 貿易政策의 展開와 評價

1. 産業構造高度化 推進의 背景

(1) 國內經營與件의 惡化 및 그 要因

최근 제조업의 성장을 둔화 및 제 3차산업의 비대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영여건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1991년 産業센서스(“中華民國80年 臺灣地區 工商及服務業普查”)에 따르면, 대만 산업전체의 총수입 대비 이윤율은 1986년 6.80%에서 1991년 7.45%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表 14〉 臺灣의 産業別 經營成果 推移

(단위 : 千元, %)

산 업	노동생산성 (1인당 생산액)		자본생산성 (운용자본기준)		이윤율 (이윤/총수입)	
	1986	1991 (변화율)	1986	1991 (변화율)	1986	1991
공 업	1,171	1,801 (53.7)	0.97	0.72 (←25.7)	7.00	6.79
광 업	651	1,358 (108.5)	0.95	0.27 (-71.5)	2.66	3.65
제조업	1,219	1,838 (50.8)	1.12	0.82 (-26.7)	6.58	6.41
전 력	3,687	4,755 (29.0)	0.25	0.27 (9.5)	20.42	15.32
건설업	552	1,249 (127.3)	0.84	0.50 (-40.9)	4.35	7.05
서비스업	556	950 (67.8)	0.10	0.10 (-1.7)	6.51	8.04
상 업	339	673 (98.6)	0.38	0.27 (-28.1)	4.06	6.23
운수창고	859	1,411 (64.3)	0.40	0.44 (8.3)	11.31	13.35
금융보험	1,628	1,999 (22.7)	0.03	0.03 (-4.8)	9.12	9.13
사업서비스	530	872 (64.5)	0.51	0.46 (-9.5)	11.19	10.78
사회·개인서비스	450	809 (79.9)	0.45	0.31 (-30.5)	11.12	11.66
총 계	938	1,406 (50.0)	0.33	0.25 (-24.7)	6.80	7.45

資料 : 行政院 主計處, 「中華民國80年 臺灣地區 工商及服務業普查初步綜合速報」, 1992.

6.58%에서 6.41%로 감소하였다(〈表 14〉 참조). 물론 이것은 제조업의 전반적 추세라기보다 석유정제 및 산업용화학물 등 일부 중화학 공업의 예외적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이윤율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식료품, 담배, 의복, 가죽, 목제품, 잡제품 등 경공업의 이윤율은 제조업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중공업의 경우에는 종이, 석유정제,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다 (〈附表 8〉 참조).

한편 제조업부문의 평균 勞動生産性 (노동자 1인당 名目生産額)은 1986-91 기간중 산업전체의 평균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금융보험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증가율에는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윤율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1986-91 기간중 상당한 고정자본투자의 증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대만 제조업체들은 勞動費用 上昇 및 勞動力 不足에 대응하여 자본집약적 및 기술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생산성, 즉 운용자금 단위당 생산액은 1986-91년 기간 중 26.7%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조업 생산방식의 고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윤율의 하락이 대만기업들의 경영여건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때, 그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역시 노동비용상승 및 노동력부족 등 勞動力投入에서의 애로사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센서스 응답기업의 74%와 73%가 노동비용상승 및 노동력부족을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50%의 기업이 국내동종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競爭激化를 경영곤란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제조업의 경영악화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기업들의 평가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表 15〉 참조). 중요한 순서대로 4개 요인을 선택하여 최고 4점에서 최하 1점을 부여하도록 한 결과, 노동력부족 및 노동비용상승

이 각각 2.45 및 2.24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쟁심화요인이 1.33을 기록하였다. 한편 勞使關係나 治安상의 불안은 별로 문제시되지 않으며, 생산기술수준의 정체에 대해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노동공급이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밖에는 개별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화학산업의 경우 경쟁격화가 노동비용상승이, 석유정제산업의 경우에는 환경규제강화가 각각 중요한 費用壓迫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9> 참조).

<표 15> 臺灣 제조업의 경영악화 요인

요 인	노동력 부 족	기술 정체	임금 상승	경쟁 치열	시장정보 부 족	환경 규제	치안 불안	노사 쟁의	운 영 자금난	R&D 부족	공장부지 부 족
평 가	2.45	0.70	2.24	1.33	0.66	0.28	0.21	0.22	0.43	0.31	0.28

註 : 중요한 순서대로 4점에서 최하 1점을 배점.

資料 : <表 14>와 동일

(2) 輸出競爭力의 下落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국내경영여건이 주로 노동비용상승으로 크게 악화되었다고 할 때, 외부적으로도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의 강화, 경상수지 흑자 시현에 따른 대만화폐의 평가절상 압력, 그리고 선진국경기의 침체 등이 제조업의 수출여건을 어렵게 하였다. 그 결과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수출증가율의 둔화와 주요 선진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1987년 이후 1990년까지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시장, 특히 美國 및 日本에서의 수출시장점유율 하락이 1987-90 기간중의 전반적인 수출성장의 둔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C시장 점유율은 199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表 16〉

臺灣의 輸出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세 계	1.13	1.35	1.84	1.61	1.49	1.70	1.86
미 국	5.49	6.22	5.70	5.19	4.63	4.76	4.67
일 본	3.70	4.77	4.66	4.25	3.61	4.01	4.06
E U	0.61	0.83	0.90	0.89	0.84	0.96	0.98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Yearbook 1992*.

나 아직 그 비중은 1%에도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表 16〉 참조).

대만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있어서 직접적 원인은 輸出單價의 급격한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7-89 기간중 달러가격으로 표시된 수출단위가격지수는 연평균 10% 이상씩 상승하였다(〈表 17〉 참조). 이러한 수출단가의 급증에는 대만화폐의 평가절상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 대만화폐의 대미환율은 1987-89 기간중 연평균 11.2%나 절상되었고, 도매물가지수를 고려한 대미 실질환율 역시

〈表 17〉

臺灣 製造業의 輸出競爭力 및 決定要因 推移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출금액(\$) _{지수*}	100.0	135.0	152.3	164.2	160.2	180.4	186.7
상품수출물량 _{지수*}	100.0	116.5	117.7	120.4	119.0	132.0	133.5
수출단가(\$) _{지수*}	100.0	115.9	129.4	136.4	134.6	136.7	139.9
수출단가(NT\$) _{지수*}	100.0	97.5	97.7	95.1	95.6	96.7	92.9
명목환율 _{지수}	100.0	83.9	75.6	69.8	71.1	70.9	66.5
실질환율 _{지수**}	100.0	89.1	84.8	82.5	87.5	87.4	85.5
명목임금 _{지수*}	100.0	109.2	121.9	139.7	158.5	175.9	194.0
노동생산성 _{지수*}	100.0	107.9	116.0	127.8	137.9	152.9	158.9
단위노동비용 _{지수(NT\$)*}	100.0	101.3	106.0	111.9	119.1	119.1	126.8
단위노동비용 _{지수(\$)*}	100.0	120.7	140.2	160.3	167.5	168.0	190.7
우대금리(년말)	7.0	6.25	6.75	10.50	10.0	8.50	8.0

註 : * 제조업 대상.

** 대만화폐의 명목환율 · 미국도매물가지수/대만도매물가지수

7.4%나 절상되어 대만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실제로 상당히 하락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대만화폐의 명목환율은 1990년에는 소폭으로 절하되었고 1991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가, 1992년에 소폭 절상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달러표시 수출단가의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자국표시 수출가는 1986-90 기간중 198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여 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중 名目賃金은 거의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은 1.9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환율의 평가절상에 대응하여 대만의 수출기업들이 같은 기간중 원가상승의 부담을 상당부분 감수하는 동시에 상당한 경영혁신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臺灣 産業 · 貿易政策의 課題와 推進方向

대만의 산업정책은 제 1단계 수입대체기(1953-60), 수출확장기(1961-72), 수입대체 및 수출확장기(1973-80), 기술집약형 산업개척기(1981-현재)를 거치며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 장려에서 연구개발, 인력자원개발, 자동화설비 등 技能爲主의 지원으로 바뀌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시장개방 및 投資自由化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산업구조조정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1993, 참조). 또한 국가발전 6개년계획(1991-1996)에서와 같이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1) 研究開發 및 産業構造調整 促進

대만정부는 1991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조례에 대신하여 “産業構造高度化

條例”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조례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대신 연구개발 및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구조조정투자에 대한 가속감가상각과 생산설비자동화, 공해방지용 설비 및 기술 구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는 실제로 1991년 이후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발전 6개년계획에 따르면 대만이 중단기적으로 주요 유망산업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1) 통신, 2) 정보, 3) 소비자 전자제품, 4) 반도체, 5) 정밀기계 및 자동화, 6) 우주항공, 7) 첨단소재, 8) 특수화학 및 의약품, 9) 의학 및 보건, 10) 오염규제 등 10개이다.

또한 대만 정부는 전통적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첨단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 광전기술 (opto-electronics), 2) 컴퓨터 소프트 웨어, 3) 산업 자동화기술, 4) 소재응용기술, 5) 고도감응기술, 6) 生命工學기술 (biotechnology), 7) 자원개발기술, 8) 에너지절약기술 등 8대 핵심산업기술의 개발을 과제로 삼고 있다.

(2) 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投資環境造成

대만은 그동안 여타 경쟁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하였던 투자 때문에 생산 설비나 기술면에 있어서도 생산요소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곧 經濟成長潛在力의 枯渴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산업기반의 空洞化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발전 6개년계획은 생산요소 및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用水, 공장부지, 인력 등 생산요소의 공급의 확대 및 교통 및 통신시설의 정비가 중점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공장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가동중인 新竹과학공업단지와 같은 성격의 첨단산업전용공단을 3-4개 정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추가적 인력공급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질적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강화도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교통 및 통신망의 정비는 제조업의 전반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만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 및 경영센터로 육성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3) 市場開放 推進

대만의 경제발전은 수출산업의 육성과 함께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을 통한 국내 수입대체산업의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만의 수입자유화는 3단계에 걸쳐 구분할 수 있다. 제 1차 수입자유화는 1958년 일체의 무역장벽을 관세로 단일화하면서 이루어졌고, 제 2단계에는 1970년대 무역수지의 黑字基調가 정착됨에 따라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자유화되기에 이르렀다. 제 3단계는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명목관세율은 1980년 31.2%에서 1986년 22.8%, 그리고 1990년 8.2%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평균실질관세율 역시 1986년 7.0% 수준에서 1990년에는 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表 18〉

臺灣의 貿易自由化 推移

관 세 율	1980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평균명목관세율	31.17	30.81	22.83	12.79	8.15	7.54	6.60
평균실질관세율	8.01	7.65	6.96	5.52	5.56	4.69	4.02

資料 : Schive (1993) 참조

1985년을 전후로 한 수입자유화의 본격적 추진이 국내후생 및 경쟁을 감안한 自發的 措置인지 또는 무역수지흑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이 보다 직접적 원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만의 무역정책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산업구조조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목표로 운용되어 왔다는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ldwin 1993).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증가는 어느 정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시장개방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4)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의 促進

최근 대만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技術移轉 및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이나 국내부품 사용과 같은 투자이행조건 (performance requirement)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경공업이나 특정 戰略産業에 대한 투자를 금하고 있어서 외견상으로는 자유화의 여지가 아직 많다고 하겠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는 막대한 무역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유화되었다. 1987년 외환통제의 완화, 심사기준 완화, 절차간소화 등으로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에는 중국에 대한 간접투자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중국본토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였으며 노동력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대만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의 위축 및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3. 臺灣 産業 · 貿易政策의 評價

(1) 民間企業의 調整誘導

대만의 산업정책은 한국과 비교하여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산업정책상의 변화가 민간기업이 국내의 경영여건의 악화에 적응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향후 대만의 산업구조조정방향을 짐작케 할 뿐 아니라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1991년도 산업센서스에 나타난 기업들의 향후 3년간 경영전략을 분석하여 보면 유망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에, 그리고 사양산업의 경우에는 事業多角化에 주력하고 있어 산업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센서스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가 경영위험의 분산 및 영업을윤의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대기업의 業種專門化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으나, 대만경제가 중소기업 위주라는 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기업의 44%가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개척 노력강화를 그리고 41%가 생산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전략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새로운 시장의 개척, 연구개발 강화 및 사업의 다각화가 주요 경영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직업훈련의 강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9> 참조).

영업수입의 규모별로 기업경영전략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기업일수록 연구개발강화 및 시장개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事業多角化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生産自動化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表 19〉

臺灣 製造業體의 經營戰略 (1991-1994)

경영전략 영업수입 (萬元)	해외 인력 활용	직업 훈련 강화	연구 개발 강화	시장 개척	신상품 개 발	사 업 다각화	해외 투자	생 산 자동화	오염 방지 투자	증자 설비 확충	노사 관계 개선
100 미만	0.56	0.47	1.17	0.95	0.57	1.26	0.20	0.98	0.10	0.86	0.16
100 - 499	0.67	0.89	1.21	1.18	0.75	1.24	0.22	1.05	0.16	0.77	0.40
500 - 999	0.76	0.93	1.35	1.31	0.82	1.16	0.29	1.05	0.19	0.66	0.39
1000 -4999	0.78	1.11	1.31	1.48	0.87	1.12	0.36	0.99	0.18	0.58	0.34
5000 -9999	0.78	1.10	1.32	1.71	1.00	1.01	0.44	0.97	0.18	0.50	0.28
10000-99999	0.75	1.08	1.53	1.67	1.17	0.97	0.54	1.03	0.23	0.44	0.23
100000 이상	0.40	0.90	1.89	1.75	0.88	0.99	0.49	1.20	0.35	0.39	0.11
평 균*	0.70	0.92	1.28	1.29	0.79	1.18	0.28	1.03	0.17	0.69	0.35

註 : 중요한 순서대로 4점에서 최하 1점을 배점.

資料 : 〈表 14〉와 동일

노동공급의 애로와 관련하여 직접훈련강화와 해외인력활용에 대하여 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중간규모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상당히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해외투자전략의 경우 零細企業보다는 다소 규모가 큰 中堅企業일수록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는 최근 생산활동이나 국제경쟁력측면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경영전략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화학물, 화학제품, 석유정제, 플라스틱, 전기·전자, 운수장비, 정밀기계 등 중화학공업은 연구개발강화 및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음식료품, 방직, 의류, 가죽제품, 목제품, 가구 등 경공업은 시장개척뿐 아니라 사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강화의 비중은 중공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10〉 참조).

(2) 輸入自由化와 競爭促進

수입자유화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부터 경쟁력이 있거나 유망한 산업으로

의 자원재배분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고 기대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며, 이는 바로 산업구조조정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료제약상 1986-88 기간중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율, 수입의 국내침투도 및 무역특화도간의

〈表 20〉 製造業 業種別 關稅率, 輸入浸透度 및 輸出特化度 推移

(단위 : %)

업 종	평균관세율		수입침투도		수출특화도	
	1986	1988 (증가)	1986	1992 (증가)	1986	1992 (증가)
식품	19.76	15.22(-4.54)	13.5	14.7(1.2)	30.3	12.5(-17.8)
음료·담배	49.81	48.74(-1.07)	1.8	7.5(5.7)	-48.4	-77.5(-29.1)
섬유	30.18	7.02(-23.16)	7.3	17.5(10.2)	65.1	63.5(-1.6)
의복*	58.60	14.17(-44.43)	98.9	79.0(-19.9)
나무·죽제품	6.44	3.58(-2.86)	20.1	33.2(13.1)	69.3	4.5(-64.8)
종이·인쇄	11.12	5.22(-5.90)	15.4	23.9(8.5)	-34.5	-34.3(-0.2)
가죽제품	15.81	10.03(-5.78)	17.1	22.2(5.1)	85.5	48.9(-36.6)
산업용화학물	15.82	4.75(-11.07)	27.0	35.0(8.0)	-54.0	-39.7(-14.3)
화학제품	17.03	11.94(-5.09)	23.6	25.7(2.1)	-37.8	-38.8(-1.0)
고무·플라스틱	35.50	16.06(-19.44)	3.0	7.9(4.9)	91.6	70.5(-21.1)
비금속	29.11	10.86(-18.25)	6.1	11.9(5.8)	70.0	21.1(-48.9)
기초금속	13.93	9.17(-4.76)	35.2	43.3(8.1)	-58.3	-71.1(-12.8)
금속제품	25.11	23.27(-1.84)	7.8	13.7(5.9)	84.2	73.2(-11.0)
기계	14.31	13.75(-0.56)	64.8	82.4(17.6)	-20.6	-9.8(-10.8)
전기·전자	17.63	8.26(-9.37)	47.1	52.3(6.2)	34.8	41.0(6.2)
운수기기	30.30	24.09(-6.21)	22.8	37.0(14.2)	32.3	-19.8(-52.1)
정밀기계**	22.74	11.70(-11.04)	91.9	100.0(9.1)	3.8	-5.5(-9.3)
잡제품*	26.16	4.34(-21.82)	..7	..	93.9	74.2(-19.7)
전체평균	17.47	9.64(-7.17)	25.5	33.8(8.3)	36.0	15.9(-20.1)

註 : 수입침투도 = 수입 / (국내생산 + 수출 + 수입)

무역특화도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의복 및 잡제품의 수입침투도는 생산 및 무역통계상의 불일치로 제외

資料 : 〈表 7〉 및 〈表 10〉과 동일

관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 제조업의 평균관세율(輸入額 加重)은 1986년 17.47%에서 1987년 14.99%, 그리고 1988년에는 9.64%로 감소하였다. 1988년의 관세인하는 대상품목수나 인하폭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aw-hsia Tu and Wen-thuen Wang(1988)).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잡제품 등 주로 노동집약적 부문에서의 자유화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부문도 괄목할 만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속제품, 기계, 운수장비 부문은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시장의 개방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지표로 사용되는 수입침투도는 수입을 국내수요(국내생산+수출+수입)로 나눈 백분율을 지칭한다. 국내수요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때는 100,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臺灣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입침투도는 전업종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6-88 기간중 제조업 전체의 평균 수입침투도는 25.5%에서 33.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9-91 기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1992년에 다시 1989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86-92 기간중 수입침투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기계, 운수장비 및 정밀기계를 들 수 있다. 더구나 기계 및 정밀기계는 수입침투도가 가장 높은 부문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경공업분야에서는 섬유 및 나무제품분야의 수입침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관세인하와 수입침투도간 相關關係는 관세인하가 이루어진 당해년도인 1988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관세인하는 수입증가 및 국내생산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2〉 참조). 따라서 수입침투도는 단기적으로는 수출변화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시장개방의 정확한 지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86-92 기간중 관세인하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소비재 부문이고, 실제 섬유·의복에서는 수입침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수

입침투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기계, 정밀기계 및 운수장비 분야로서 관세율인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자동화 및 새로운 시설투자 등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시설재 수입증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수입자유화는 쇠퇴산업의 정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수입자유화는 정태적으로는 수입증가를 초래하게 되나 동태적으로는 경

〈表 21〉 關稅引下(1986-88)와 主要貿易關聯指標와의 相關係數

	1988	1989	1990	1991	1992	1988-92
관세인하-수입증가	.01	.27	.47	.23	.01	.14
관세인하-국내생산감소	.48	.29	.25	.30	.56	.28
관세인하-수입침투도증가	.54	-.33	.18	-.00	.22	.03
관세인하-무역특화도감소	.11	-.12	.32	-.04	-.39	-.16

註 : 관세인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화율을 사용

쟁강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의 지표로서 貿易特化度 $\frac{(수출-수입)}{(수출+수입)}$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특화도는 1986년 36.0%에서 1988년 17.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89-90 기간중에는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2년에는 15.9%로 하락하였다 (〈表 21 참조). 특히 무역특화도의 감소는 의복, 나무제품, 비금속등 노동집약적인 수출특화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기계 및 산업용화학물과 같이 수입특화산업의 무역특화도 역시 하락하였다. 수출특화도가 증가한 업종은 유일하게 전기·전자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되어 온 대만의 수입자유화가 아직 기대하는 만큼의 동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海外直接投資와 産業構造調整 促進

해외투자와 국내산업구조조정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대개 산업연관분석에 의하여 국내자본투입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산출, 수출 등에 대한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Chiu and Chung (1992) 및 김시중 (1993b) 참조). 이에 따르면 자본의 海外流出은 국내투자의 代替를 통하여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일부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의 수출과 그 파급효과에 의하여 상쇄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對중국투자의 경우에는 저임노동의 활용이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투자의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기 쉬운 반면에 부수적 수출증대효과는 상당히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해외투자가 斜陽産業의 정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지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 때, 유망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제조업의 해외투자와 성장속도에 대한 한 실증분석 (Chiu and Huang(1993))에 의하면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양자사이에 유효한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장유망산업의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성장을 저해하기보다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촉진효과는 해외투자가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국내 인적자원의 질적향상을 촉진시키고 國際的 分業體系의 진전에 따라 효율성

〈表 22〉 海外直接投資와 主要産業關聯指標간의 相關係數

대상변수	제조업전체	경 공 업	중 공 업
해외투자-수출	.13	-.07	.27
해외투자-국내생산	.10	-.02	.33
해외투자-노동생산성지수	.17	-.06	.24
해외투자-단위노동비용지수	-.16	.36	-.18

註 : 1987-92년 기간중 매년 제조업 업종별 해당자료를 누적하였음 (각 변수는 변화율 사용).

이 제고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해외투자와 주요산업지표와의 상관계수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表 22>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공업 및 중공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른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공업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국내생산, 노동생산성과 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노동비용의 경우에는 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공업의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부호가 중공업의 경우와 정반대로 나타났으며 勞動費用變數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零에 가깝다.

<表 23>에는 업종별 해외투자의 규모와 생산지수 및 노동생산성지수의 추이가

<表 23> 製造業 部門의 海外直接投資와 産業構造調整

업종	해외직접투자(백만달러)		생산지수		노동생산성지수	
	1986-92누계	구성비	1989	1992	1989	1992
음식료품	188.4	5.16	113.4	133.1	111.1	120.7
섬유	222.2	6.09	97.6	96.6	119.2	156.0
의복	12.3	0.34	83.9	65.6	107.3	109.8
나무·죽제품	29.9	0.82	86.8	60.7	114.1	118.0
종이·인쇄	95.1	2.60	120.8	140.2	113.0	129.0
가죽제품	4.3	0.12	93.5	73.2	113.8	125.0
화학	669.3	18.33	126.2	148.2	115.6	136.5
고무·플라스틱	137.6	3.77	113.0	114.3	127.6	167.2
비금속	399.4	10.94	115.8	130.8	124.7	147.2
기초금속	873.3	23.92	126.8	148.9	120.8	143.2
기계	27.7	0.76	135.4	159.9	117.2	132.2
전기·전자	990.7	27.14	141.8	161.6	143.1	181.2
운수기기	0.0	0.00	143.9	169.8	135.4	159.3
정밀기기	0.0	0.00	147.3	148.1	139.3	154.0
제조업전체	3650.2	100.00	119.0	129.2	127.8	158.6

註 : 생산지수 및 노동생산성지수는 1986년 기준

資料 : <表 5>, <表 7> 및 <表 10>과 동일

요약되어 있다.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업종은 화학, 기초금속, 전기·전자와 같은 부문으로 이들 분야는 생산지수나 노동생산성지수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다. 한편 음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등 경공업의 경우 해외투자는 이러한 산업들의 위축을 가속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투자는 사양산업의 정리 및 유망성장산업의 성장촉진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기술 및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외투자와 유망산업 성장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V. 展望 및 示唆點

1. 展望

1980년대 후반부터 대만경제는 수출주도에 의한 고도성장패턴에서 벗어나 低速成長, 內需寄與度の 增加, 그리고 製造業 成長의 鈍化라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對外交易에 있어서도 수출부진 및 수입증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해외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선진국 교역비중의 감소 및 對中國交易의 활성화라는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구조면에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 중공업으로의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 기초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의 생산지수 및 부가가치 증가,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용 화학물, 기계장비 제품의 수출비중 증가 등 다방면에 걸쳐서 산업구조조정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제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대만경제의 경험은 일찌기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보여주었던 구조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만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인 “産業空洞化”문제 역시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를 지나면서 2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의 활성화가 국내산업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피상적 관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부족 및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러한 산업이 국내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 보다는 해외투자를 통한 國際的 分業體制 확립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企業根有臺灣, 避免産業空洞化”).

소위 산업공동화 문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촉진을 통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臺灣에 대한 외국

인직접투자의 급속한 감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表 24>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8% 수준에서 1992년 6.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고정자본대체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해외투자액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상향조정되지만 그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對中國 間接投資의 신고액수를 고려하면 1991-92 기간중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국내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를 기록하고 있다).

<表 24>

國內資本形成과 直接投資規模

(단위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외국인직접투자(A)	770.4	1418.8	1182.5	2418.3	2301.8	1778.5	1461.4
제조업(B)	584.3	984.1	742.4	1628.1	1445.8	1241.6	739.5
해외직접투자(C)	56.9	102.8	218.7	931.0	1552.2	1656.0	887.3
제조업(D)	35.9	71.6	86.0	649.7	915.3	885.8	378.5
국내고정자본형성(E)	13675.7	19536.8	25356.9	32388.8	35231.4	39157.9	47997.1
제조업(F)	4616.8	6566.4	8090.6	9148.9	9203.8	9410.9	11469.8
A/E(%)	5.6	7.3	4.7	7.5	6.5	4.5	3.0
B/F(%)	12.7	15.0	9.2	17.8	15.7	13.2	6.4
C/E(%)	0.4	0.5	0.9	2.9	4.1	4.2	1.5
D/F(%)	0.8	1.1	1.1	7.1	10.0	9.4	6.5

註 : 직접투자는 허가기준

資料 : <表 1> 및 <表 5>와 同一

1990년대 臺灣의 産業政策은 연구개발, 자동화 및 시장개척 등 민간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뒷받침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개방 및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배경으로는 노동비용의 급속한 상승 및

노동력의 부족,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심화 등 국내경영여건 악화와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 강화 및 환율의 평가절상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실제 앞의 분석에서 우리는 臺灣의 최근 산업 및 무역정책의 변화가 사양산업의 정리를 통하여 산업간 조정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자동화를 통하여 산업내 조정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산업구조고도화가 자본재·중간재 및 기술공급의 自給度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공업국 수준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대만경제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비교우위체제에 대한 신속하고 신축적인 적응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고도기술산업이라기보다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 가깝다고 하겠다. 또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를 상당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활성화 역시 사양산업의 정리를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대만 경제를 현재수준의 분업구조 속에 고착시킬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산업구조조정은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충전, 조립가공무역의 극복, 연구개발기반의 확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民間投資의 活性化

臺灣은 한국을 위시한 주요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고정투자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민간투자의 성장율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구증가율의 둔화추세는 잠재성장율의 둔화를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유윤하·이진면 (1993) 참조). 실제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만의 경제성장을 저하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 잠재성장율의 하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선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대만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중인 국가발전 6개년 계획은 최근 財源調達の 어려움 때문에 정부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본토에 대한 해외투자 활성화와는 대조적으로 국내민간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중심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組立加工貿易構造의 克服

1980년대 중반 이후 臺灣의 산업구조조정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개편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첨단기술산업과는 거리가 먼 기존의 組立加工型 産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대만의 수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 및 기계설비의 비중이나, 또는 기술집약도나 자본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만의 對日 貿易收支赤字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크며, 1985년 엔화의 평가절상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이나 기계산업의 경우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산업구조가 가공조립패턴에서 벗어나려면 高技術의 資本財 産業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위험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경제에 있어서 민간기업 중심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더 이상 용납되기 힘든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경제는 저기술 조립가공적 산업

에 안주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朴英哲 (1993) 참조).

研究開發基盤의 擴充

산업구조고도화에 있어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기술기반은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동안 대만은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며, 연구개발투자는 최근에 와서야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현재 국방관련프로젝트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지출의 對GNP 비율을 보면 대만은 1.65%를 기록하여 일본의 2.66%, 독일의 2.71%, 미국의 1.95% 수준은 물론, 1.92%를 기록한 한국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수에 있어서도 대만은 4만명 정도에 불과하다(한국은 7만명). 다만 특허건수에 있어서는 대만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어 절대적인 규모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기술이전의 주요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거의 전분야에 걸쳐 직접투자 유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분야 역시 첨단기술업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만은 과학공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중이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다.

대만정부는 기술개발투자 증대를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대기업 육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기반의 취약성 및 중소기업중심의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示唆點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산업구조조정 진전상황은 유사한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좋은 연구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향후 대만의 산업구조고도화의 한계 및 과제들은 상당부분 韓國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産業構造調整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安定的 巨視經濟環境의 造成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만정책당국에 의한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는 산업구조조정 비용을 경감하고 기업들의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우선 대만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수지흑자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보다 더욱 엄격한 총통화관리 및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급격한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만의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김종만(1993) 참조).

이러한 안정정책의 기초 속에서 대만이 국내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환율의 평가절상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던 반면,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를 택한 한국은 국내물가상승 및 국제경쟁력의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1980년말 대만이 무역수지면에서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한 반면, 한국이 1990-92년 기간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근본적 이유는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열세보다 바로 이러한 총수요관리정책상의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Koo and Park (1992) 참조).

대만의 경험은 또한 거시경제적 안정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대만의 경우에는 1988년에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그 후의 감소추세도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民間企業의 自發的 經營革新 誘導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만기업들이 우리와 유사한 국내의 경영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보여준 신속적 적응력 및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환율의 평가절상에 대응하여 대만의 수출기업들은 요소비용의 대폭적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수출단가를 낮춤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였다. 1988-90 기간중 한국의 제조업 명목임금지수는 대만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환율의 평가절하면에서는 대만이 훨씬 빨라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는 거의 비슷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출단가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은 대만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절하 주장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이 쌍무적 무역수지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집요하게 대만 화폐의 환율절상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도 상당히 의문시 된다고 하겠다 (美 재무부(1992)).

또한 대만기업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 연구개발강화 및 시장개척 그리고 생산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제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신속적으로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쟁유발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投資 및 營業環境의 改善

개방화 및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만을 비롯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모두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규제완화 등 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가 1980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오고 있는 과학공업단지를 3-4개 정도 신설하려는 노력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중인 外國人專用工團 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투자의 경우에는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기술과 달리 생산요소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조달비용이나 정보·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최근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첨단기술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특화하고 있는 이유는 인접 싱가포르의 하부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경영본부(OHQ: Operational Headquarter)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 및 경영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제조업 성장둔화에 대처하여 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부품조달망을 구축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臺灣 역시 APEC의 참여를 계기로 臺灣經濟를 지역금융 및 경영센터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뿐 아니라,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첨단서비스업, 유통산업 및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積極的 研究開發促進政策의 推進

臺灣의 경험은 시장개방 및 해외투자자유화가 단기적으로 국내사양산업의 정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정책과 유망

성장산업의 경쟁력제고와의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으며,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에는 그 이상의 적극적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대만보다는 높은 편이나 국제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이들 유망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고갈될 위험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보호장벽의 제공은 국제여건상 더 이상 허용되기 힘들 것이다.

정부의 技術集約的 戰略産業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의미로는 앞에서 언급된 규제완화에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는 기술개발환경의 정비로 귀착될 것이다. 尖端技術은 많은 요소기술의 집합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자체의 능력으로는 기초과학기술기반을 형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연구기관간의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또한 人的資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郭文政, “전환기에 있는 한국: 대만의 경험에서 본 견해,”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경쟁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2.
- 김시중, “중국·대만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오늘의 世界經濟 9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a).
- ,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정책연구 9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b).
- 김종만, 「대만의 환율운용과 수출경쟁력」, 연구보고서 93-11, 한국조세연구원, 199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대만편람」, 1993.
- 박영철,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선택과 도전,” 「계간 사상」, 1993.
- 유재원, 「韓國·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정책연구 9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유윤하, 이진면, “고투자율경제의 균형잠재성장을,” KDI연구속보, 제 30호, 1993.
- 林武郎, “臺灣「産業空洞化」問題之探討,” 「自由中國之工業」, Vol.80 No.4, 1993.
- 10.
- 한국무역협회, “전후 대만의 산업정책변화와 그 효과분석,” 「월간 해외경제동향」, 제 243호 및 제 244호, 1993.
- 한홍렬,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정책연구 9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Baldwin, Robert E., “Trade Policies in a Maturing Taiwan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volution of Taiwan within a ‘New World Economic Order,’” sponsored by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May 28-29, Taipei, Taiwan.

Chen, Tain-Jy, "Determinants of Taiwan's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Case of a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9, 1992, pp.397-407.

Chiu, Lee-in Chen and Chi-tsung Huang, "The Shift of Fact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via DFI: Evidence from the Industrial Interaction between taiwan and Mainland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Internationalization of Taiwan Industry," sponsored by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June 7, 1993.

Chiu, Lee-in Chen and Chin Chung, "An Assessment of Taiwan's Indirect Investment Toward Mainland China," Asian Economic Journal, Vol.7, No.1, 1993.

Department of Treasury, "Report to the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y", U.S.A, 199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aiwan, Country Profile, 1993/94, London, 1993.

Koo, Bon Ho and Won-Am Park, "Perspectives on the Korea's External Adjustment in Comparison with Japan and Taiwan," KDI Working Paper, No. 921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2.

Ma, Kai, "The Adjustment of Industrial Policies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Response to Pressure from Foreign Protectionism: The ROC,"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KDI/CHIER Conference on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February, 1990.

Schive, Chi, "Industrial Policies in a Maturing Taiwan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volution of Taiwan within a 'New World Economic Order'," sponsored by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May 28-29, Taipei, Taiwan.

Tu, Chaw-hsia and Wen-thuen Wang, "Trade Liberaliza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KDI/CHIER Conference on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February 8-9, 1988.

Wu, Rong-I, "Taiwan: Adjustment in an Export-Oriented Economy," in Hugy Partick and Larry Meissner eds., Pacific Basin Industries in Distress,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附 錄



〈附表 1〉 外國人直接投資 業種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單位 : 백만달러)

업 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52-92
농림업	0.4	0.5	1.5	0.0	0.4	0.0	0.0	6.0
수산·축산업	0.1	0.0	6.8	0.0	0.0	0.2	0.0	30.7
광업	0.1	12.4	0.0	0.0	0.0	0.1	0.0	13.2
제조업	584.3	984.1	742.4	1628.1	1445.8	1241.6	742.5	11381.0
음식료품	9.4	77.1	56.9	219.2	110.2	38.4	55.0	703.5
방직	5.7	16.2	25.8	52.4	31.4	46.6	15.2	307.2
의류·신발	3.0	4.5	3.8	5.3	3.3	13.3	1.4	83.7
목재 및 제품	1.4	7.8	3.6	11.9	23.0	13.3	8.6	99.0
종이 및 제품	2.7	9.8	13.0	33.2	8.8	1.2	12.4	109.4
피혁 및 제품	1.0	2.4	0.9	0.8	2.5	0.5	1.8	25.1
고무·플라스틱*	21.7	72.4	56.7	83.1	33.2	18.4	70.1	489.4
화학	139.9	171.6	104.2	520.0	507.7	201.0	106.5	2523.1
비금속광물	11.6	47.8	34.7	32.7	33.1	30.8	10.5	560.8
기초금속**	45.6	121.2	68.4	175.6	187.2	133.0	40.2	1121.0
기계장비	110.6	75.9	137.1	102.9	128.4	175.0	97.5	1330.0
전기전자	231.7	377.4	237.3	391.0	377.0	570.1	323.3	4028.7
건설업	0	3.8	11.3	17.1	12.5	7.7	21.3	179.1
무역업	4.8	40.7	109.7	222.1	284.1	231.8	221.5	1139.1
금융·보험업	80.3	15.1	52.1	150.1	314.2	122.1	196.4	1163.1
운송업	46.7	43.2	63.6	65.3	39.1	30.0	22.7	370.7
서비스업	45.5	310.8	177.1	312.1	167.7	136.3	250.9	1996.0
기타	8.2	8.2	18.1	23.5	38.0	8.5	6.2	212.4
합 계	770.4	418.8	1182.5	2418.3	2301.8	1778.4	1461.4	16491.4

註: * 플라스틱은 해당사항 없음.

** 금속제품 포함.

資料: 「中華民國 華僑及 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對大陸間接投資 統計月報」, 1993. 10.

〈附表 2〉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單位 : 백만달러)

투자 국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52-92
아시아	375.0	652.8	658.0	1030.7	1248.5	852.2	910.6	8068.5
홍콩	76.4	181.2	156.8	248.1	236.0	128.6	213.0	1775.3
일본	255.9	432.2	444.9	667.6	838.9	535.3	412.2	4778.2
싱가폴	2.9	14.1	16.6	71.1	73.0	73.8	187.6	730.6
미주	206.7	545.1	367.7	649.5	745.7	704.3	365.3	5756.0
미국	146.9	446.5	160.8	380.9	581.3	612.1	220.4	4480.6
캐나다	2.2	12.8	6.6	3.3	16.4	1.3	29.4	122.3
유럽	139.6	234.3	207.3	531.6	348.4	221.9	165.0	1925.1
영국	59.8	19.0	36.2	70.1	89.4	43.7	11.5	466.3
독일	5.0	65.4	9.6	26.9	37.8	20.1	16.7	248.8
프랑스	5.5	49.4	2.1	7.1	17.4	6.0	28.1	120.7
화란	60.1	28.9	37.1	159.3	49.9	54.9	68.6	626.1
전체	770.4	1418.8	1182.5	2418.3	2301.8	1778.4	1461.4	16491.4

資料 : 〈附表 1〉과 동일

〈附表 3〉 海外直接投資 業種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單位 : 백만달러)

업 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2-92
농림업	0.0	0.0	0.3	0.4	5.0	7.5	0.0	13.8
수산·축산업	0.5	0.0	0.4	0.0	0.0	0.0	0.7	5.7
광업	0.0	0.0	0.0	0.0	0.0	1.4	0.0	1.4
제조업	35.9	71.6	86.0	649.7	915.3	885.8	378.5	3205.6
음식료품	0.0	5.0	1.9	0.1	163.7	13.8	4.0	198.7
방직	0.0	0.7	3.7	37.6	50.2	52.0	78.0	232.9
의류·신발	0.8	1.2	0.0	0.0	2.7	3.1	4.4	13.8
목재 및 제품	0.0	0.2	0.6	1.5	8.9	10.2	8.4	33.9
종이 및 제품	4.6	3.0	0.0	4.6	16.5	55.5	10.9	110.7
피혁 및 제품	0.7	0.0	2.1	0.0	0.9	0.5	0.0	4.4
플라스틱·고무*	2.9	8.1	5.6	40.6	11.3	42.6	26.6	147.5
화학	0.5	9.1	28.4	414.9	77.9	67.4	71.0	712.5
비금속광물	0.0	4.0	1.0	1.3	121.8	63.3	3.6	208.0
기초금속**	0.5	0.0	2.9	20.4	32.5	360.3	33.8	456.7
기계장비	0.6	0.8	0.2	6.9	4.9	7.9	6.6	28.7
전기전자	25.3	39.6	39.5	21.9	423.9	209.3	131.2	1057.8
건설업	0.0	5.0	0.0	27.7	9.3	19.0	1.1	64.2
무역업	0.3	4.3	15.9	10.7	61.8	84.3	141.9	333.9
금융·보험업	15.3	0.0	4.0	172.4	498.5	403.7	305.4	1400.3
운송업	0.2	0.0	0.0	9.9	17.4	4.3	4.8	36.7
서비스업	2.9	9.0	111.6	54.4	43.2	246.6	48.4	525.1
기타	1.9	12.9	0.5	5.8	1.6	3.4	6.5	33.1
합 계	56.9	102.8	218.7	934.0	1552.2	1656.0	887.3	5619.8

註 : * 플라스틱은 해당사항 없음.

** 금속제품 포함.

資料 : 〈附表 1〉과 동일

〈附表 4〉 海外直接投資 地域別 分布 推移 (許可基準)

(單位 : 백만달러)

투자지역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2-92
아 시 아	8.4	21.3	69.3	296.4	602.9	929.8	369.9	2377.5
홍 콩	0.3	1.3	8.1	10.4	33.1	199.6	54.4	315.3
일 본	0.6	3.5	2.0	0.3	1.8	3.4	5.3	17.4
싱가폴	0.4	1.3	6.4	5.2	47.6	12.5	8.8	91.6
아세안	6.1	14.8	52.7	276.9	408.8	690.1	280.2	1894.7
필리핀	0.1	2.6	36.2	66.3	123.6	1.3	1.2	241.5
인도네시아	1.8	1.0	1.9	0.3	61.9	160.3	39.9	292.9
태 국	5.8	5.4	11.9	51.6	149.4	86.4	83.3	403.3
말레이시아	0.0	5.8	2.7	158.6	184.9	442.0	155.7	957.1
베트남	0.0	0.0	0.0	0.0	0.0	17.1	20.2	38.7
미 주	46.7	80.3	130.3	624.4	838.7	659.0	449.1	2952.4
미 국	46.0	70.1	123.4	508.7	428.7	297.8	193.0	1784.8
유 럽	0.2	0.2	12.0	2.3	96.2	60.3	45.9	221.4
영 국	0.0	0.0	0.9	0.0	11.4	14.6	4.4	34.5
독 일	0.0	0.2	2.6	0.9	9.7	3.8	15.2	32.4
프랑스	0.0	0.0	1.0	0.0	6.8	1.0	2.9	11.7
화 란	0.2	0.0	0.0	1.4	5.9	6.7	9.7	23.9
전 체	56.9	102.8	218.7	934.0	1552.2	1656.0	887.3	5619.8

資料 : 〈附表 1〉과 동일.

〈附表 5〉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業種分析 (許可基準 1952-92 累計)

(單位 : 건수, 백만달러)

업 종	아 시 아	미 주	유 럽	중 국*
농림업	13.8 (6)	0.0 (0)	0.0 (0)	0.0 (0)
수산·축산업	1.1 (3)	1.4 (3)	0.0 (0)	0.0 (0)
광업	1.4 (1)	0.0 (0)	0.0 (0)	0.9 (1)
제조업	1973.3 (473)	1124.0 (280)	85.3 (29)	399.6 (459)
음식료품	37.5 (21)	160.4 (6)	0.0 (0)	65.7 (47)
방직	192.5 (49)	5.1 (3)	34.8 (1)	32.4 (18)
의류·신발	6.1 (22)	5.4 (11)	0 (0)	24.2 (48)
목재 및 제품	26.4 (22)	7.2 (5)	0 (0)	13.9 (27)
종이 및 제품	107.5 (12)	3.2 (2)	0 (0)	8.3 (12)
피혁 및 제품	3.9 (5)	0.6 (2)	0 (0)	7.2 (16)
플라스틱·고무	87.3 (48)	58.0 (17)	0.1 (1)	110.8 (106)
화학	291.5 (44)	417.6 (18)	2.5 (3)	17.6 (26)
비금속광물	200.1 (27)	5.8 (4)	0 (0)	12.7 (26)
기초금속	430.7 (56)	13.4 (10)	0.2 (1)	26.9 (45)
기계장비	23.0 (22)	4.6 (7)	0.1 (1)	10.6 (11)
전기·전자	566.7 (145)	442.8 (195)	47.6 (22)	69.4 (77)
건설업	20.3 (11)	37.5 (7)	6.5 (2)	0.0 (0)
무역업	115.0 (207)	100.2 (141)	108.1 (73)	0.0 (0)
금융·보험업	57.0 (25)	650.3 (40)	680.0 (48)	0.0 (0)
운송업	4.7 (7)	20.5 (10)	0.0 (0)	0.0 (0)
서비스업	173.4 (28)	221.7 (81)	123.9(17)	0.0 (0)
기타	17.4 (9)	5.6 (9)	10.2 (3)	20.6 (41)
합 계	2377.3 (768)	2161.1 (571)	1013.9 (164)	421.2 (501)

註 : * 1991-92 누계. 중국투자(제3국경유)는 〈附表3〉-〈附表4〉의 집계에는 빠져 있음.

資料 : 〈附表 1〉과 동일.

〈附表 6〉

臺灣 主要重工業의 生産指數 推移

(1986 = 100)

분 류	업 종	생산지수		분 류	업 종	생산지수	
		1989	1992			1989	1992
27	산업용화학	110.14	148.56	28	화학제품	129.07	166.11
2701	기본화학	102.88	140.29	2801	페인트	127.02	183.83
2702	석유화학	91.95	112.36	2802	의약품	141.45	166.81
2703	화학비료	111.27	117.97	2803	농약	130.68	133.23
2705	인조섬유	126.71	181.66	2805	청결용품	116.57	143.20
2706	합성수지	127.28	190.93	2807	공업용촉매	102.22	132.82
2707	합성고무	83.97	103.63				
33	기초금속	120.34	159.69	34	금속제품	126.64	138.14
3311	철강제련	127.27	155.60	3401	수공구	133.29	141.48
3312	강압연	133.00	186.19	3402	금속주형	133.29	141.48
3313	철강주조	118.98	122.41	3403	금속가구	140.71	138.39
3315	강재제가공	145.27	219.94	3404	건축구조물	148.24	249.89
3318	廢車船가공	98.41	109.16	3405	알루미늄제품	106.33	108.46
3323	알루미늄가공	79.98	124.18	3406	銅제품	95.47	105.62
3326	銅기계가공	162.33	164.79				
35	기계	135.35	159.85	36	전기전자	141.76	161.56
3510	엔진	111.16	166.59	3611	발전기	146.40	166.41
3542	방직기기	183.82	169.08	3612	가전전기	177.39	184.73
3543	화학	131.19	140.88	3613	전선	141.42	161.56
3544	플라스틱	102.72	123.04	3614	조명설비	89.14	47.51
3545	종이·인쇄	176.48	155.55	3619	컴퓨터	173.49	241.52
3546	목공	129.32	150.55	3921	전자제품	111.34	72.02
3553	수송설비	165.96	218.50	3623	전자부품	143.57	192.98
3560	사무용기기	100.39	135.54	3624	통신기재	157.47	178.36
				3630	전지	122.02	166.36
37	운수장비	143.86	169.79	38	정밀기기	147.31	148.13
3371	조선·수리	140.28	80.08	3801	과학계량기기	140.55	159.13
3373	자동차	184.05	253.58	3802	사진광학기기	160.60	142.53
3373	자동차부품	162.09	182.54	3804	시계	122.25	135.91
3374	모토사이클	144.37	176.21	3805	의학기기	129.35	141.27
3374	부품	154.45	253.40				
3375	자전거	73.85	61.31				
3375	부품	112.48	118.53				

資料：臺灣 經濟部, 「中華民國·臺灣地區 工業生産統計月報」, 1993.10.

〈附表 7〉 臺灣의 主要品目別 輸出入 推移

1. CCC 분류

(단위 : 백만달러)

CCC	품 목	1989	1992	CCC	품 목	1989	1992
03	수산물	1095.8	773.4	10	곡물	851.8	913.1
28-38	화학제품	1058.3	1769.4	16-24	음식료품	1066.5	1507.6
39	플라스틱제품	3832.9	4815.1	27	광물연료	4298.0	5610.6
40	고무제품	503.1	639.9	28-38	화학제품	5800.5	7148.8
44-46	목제품	1161.9	856.0	39	플라스틱제품	1261.5	1876.6
50-60	섬유*	6053.2	8226.0	44-46	목제품	1209.4	1684.9
61-62	의복	4302.5	3615.8	50-63	섬유·의복	1954.2	2731.4
64	신발	3799.5	3703.6	72-73	철강제품	3820.0	4991.2
69	도자기	665.2	618.4	84	발전기·기계	6953.2	9744.0
72-83	기초금속제품	5192.2	6464.5	85	전자	7996.1	12580.4
84	발전기·기계	9819.1	15921.1	86-89	수송기기	3956.2	6067.6
85	전자	12040.1	13769.2	90-92	정밀기기	1267.3	1905.1
86-89	수송기기	3020.2	4199.9	미분류	금속·보석	921.4	1803.5
90-92	정밀기기	1681.2	2202.0				
94	가구·침구 등	2456.6	2774.9				
95	완구·스포츠 용품	3037.7	3318.7				

註 : * 63 기타섬유제품 포함

資料 : 臺灣 財政部, 「中華民國·臺灣地區 進出口貿易統計月報」, 1993.10.

2. 10대 수출입상품

(단위 : 백만달러)

수 출	1991	1992	수 입	1991	1992
전자제품	8,134(10.7)	8,688(10.7)	전자제품	7,107(11.3)	9,051(12.6)
일반기계	6,796(8.9)	7,536(8.9)	일반기계	6,170(9.8)	7,294(10.1)
사 및 직물	6,752(8.9)	6,940(8.9)	수송기기	3,965(6.3)	6,049(8.4)
정보통신기기	5,653(7.4)	6,442(7.4)	철강제품	4,735(7.5)	4,991(6.9)
플라스틱·고무	5,171(6.8)	5,455(6.8)	유기화학물	3,653(5.8)	3,598(5.0)
수송기기	3,930(5.2)	4,199(5.2)	금속제품	3,345(5.4)	3,367(4.7)
신발	3,811(5.0)	3,704(5.0)	원유	3,204(5.1)	3,051(4.2)
철강제품	2,876(3.8)	3,293(3.8)	전기기기	1,806(2.9)	2,090(2.9)
의류	3,520(4.6)	3,130(4.6)	통신기기	1,690(2.7)	1,921(2.7)
금속제품	2,930(3.8)	3,171(3.8)	광학·의료기기	1,444(2.3)	1,614(2.2)
총수출액	76,161(100)	81,480(100)	총수입액	62,862(100)	72,000(100)

註 : 괄호안의 수치는 총수출(수입)액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

資料 : KOTRA 대만사무소

〈附表 8〉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生産性 및 利潤率 推移

(단위 : 천 원, %)

업 종	노동생산성 (1인당 생산액)		자본생산성 (운용자본기준)		이윤율 (이윤/총수입)	
	1986	1991(변화율)	1986	1991(변화율)	1986	1991
음식 료 품	1,739	2,488 (43.1)	1.12	0.79 (-29.4)	4.05	6.40
담 배	4,974	6,134 (23.2)	0.97	0.73 (-24.7)	0.45	4.07
방 직	1,128	1,753 (55.4)	1.09	0.73 (-33.0)	6.35	6.63
의 류	672	914 (35.9)	1.88	1.06 (-43.6)	3.94	5.60
가죽 제 품	911	1,475 (61.9)	1.84	0.98 (-46.7)	2.03	5.17
목재 · 축제품	774	1,169 (50.9)	1.28	0.67 (-47.6)	4.40	6.18
가구 · 장치물	826	1,221 (47.8)	1.58	0.90 (-43.0)	4.41	6.44
종이 · 제품	1,558	1,754 (12.5)	1.09	0.70 (-35.7)	6.78	3.95
인쇄 · 출판	647	1,008 (55.7)	1.09	0.63 (-40.0)	8.44	10.12
산업용화학	3,423	4,132 (20.7)	0.88	0.68 (-22.7)	12.01	9.98
화학 제 품	1,525	2,055 (34.7)	1.06	0.74 (-30.1)	7.20	8.45
석유 · 정제	6,488	1,935 (83.9)	0.69	0.92 (33.3)	24.78	-0.09
플라 스틱	887	1,188 (33.9)	1.37	0.88 (35.7)	4.16	8.07
고무 제 품	946	1,479 (56.4)	1.66	0.94 (-43.3)	4.99	6.67
비금속광물	979	1,551 (58.2)	0.74	0.69 (6.7)	7.44	8.91
기초 금 속	2,771	3,869 (39.6)	0.73	0.70 (-4.1)	5.61	7.51
금속 제 품	795	1,193 (50.0)	1.38	0.84 (-39.1)	6.55	7.27
기계 · 장비	937	1,466 (56.3)	1.18	0.85 (-27.9)	6.13	7.30
전기 · 전자	1,145	1,882 (64.3)	1.34	0.91 (-31.0)	4.48	5.31
운수 장 비	1,476	2,353 (59.4)	1.07	0.94 (-12.1)	3.23	6.33
정밀 기 계	773	1,274 (64.7)	1.57	1.09 (-30.5)	5.29	5.78
잡 제 품	768	1,146 (49.3)	1.83	0.98 (-46.4)	4.90	6.04
총 계	1,219	1,837 (50.7)	1.12	0.82 (-26.7)	6.57	6.40

資料 : 臺灣 行政院主計處, 「中華民國80年 臺灣地區 工商及服務業普查初步綜合速報」, 1992.

〈附表 9〉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經營惡化 要因

업 종	노동력 부족	기술 정체	임금 상승	경쟁 치열	시장 부족	환경 규제	치안 불안	노사 쟁의	운 영 자금난	R&D 부족	부지 부족
음식료품	2.08	0.89	2.10	1.30	0.67	0.20	0.15	0.41	0.31	0.16	0.14
담 배	--	2.00	--	1.00	3.00	--	--	--	--	4.00	--
방 직	2.56	0.57	2.41	1.33	0.55	0.33	0.14	0.19	0.43	0.20	0.27
의 류	2.73	0.59	2.39	1.53	0.52	0.11	0.20	0.28	0.36	0.28	0.15
가죽 제품	2.67	0.66	2.36	1.34	0.51	0.31	0.19	0.20	0.40	0.23	0.21
목재·죽제품	2.25	0.76	2.39	1.61	0.73	0.29	0.18	0.21	0.47	0.26	0.15
가구·장치물	2.46	0.68	2.47	1.52	0.63	0.20	0.15	0.35	0.40	0.24	0.19
종이·제품	2.37	0.68	2.38	1.37	0.68	0.35	0.21	0.26	0.31	0.25	0.34
인쇄·출판	2.21	0.97	2.16	1.16	0.65	0.22	0.21	0.20	0.44	0.25	0.29
산업용화학	1.99	0.63	2.06	1.91	0.64	0.51	0.24	0.10	0.25	0.46	0.34
화학 제품	2.16	0.56	1.99	1.83	0.72	0.43	0.20	0.15	0.34	0.50	0.22
석유·정제	2.09	0.43	2.55	1.14	0.18	1.22	0.19	0.14	0.37	0.36	0.25
플라스틱	2.32	0.68	2.45	1.47	0.62	0.34	0.17	0.18	0.37	0.30	0.22
고무 제품	2.50	0.69	2.27	1.41	0.68	0.30	0.26	0.21	0.38	0.34	0.26
비금속광물	2.33	0.67	2.29	1.48	0.61	0.45	0.15	0.24	0.34	0.21	0.20
기초 금속	2.55	0.59	2.29	1.20	0.54	0.48	0.19	0.21	0.48	0.23	0.34
금속 제품	2.60	0.70	2.17	1.25	0.69	0.27	0.23	0.19	0.45	0.27	0.36
기계·장비	2.42	0.67	2.15	1.15	0.69	0.20	0.24	0.27	0.47	0.39	0.35
전기·전자	2.41	0.67	2.20	1.43	0.64	0.22	0.20	0.22	0.45	0.41	0.27
운수 장비	2.65	0.62	2.36	1.14	0.64	0.28	0.14	0.26	0.48	0.32	0.30
정밀 기계	2.16	0.67	2.20	1.61	0.96	0.19	0.25	0.24	0.44	0.44	0.20
잡제품	2.40	0.67	2.36	1.25	0.71	0.18	0.24	0.21	0.36	0.41	0.25
제조업평균	2.45	0.70	2.24	1.33	0.66	0.28	0.21	0.22	0.43	0.31	0.28

註：중요한 순서대로 최고 4점, 최하 1점으로 평가

資料：〈附表 6〉과 同一

〈附表 10〉

臺灣 製造業의 業種別 經營戰略 (1991-1994)

업종	해외 인력 활용	직업 훈련 강화	연구 개발 강화	시장 개척 개척	신상품 개발	사업 확화	해외 투자	생산 자동화	오염 방지 투자	증자· 설비 확충	노사 관계 개선
음식료품	0.42	0.53	1.21	1.37	0.88	1.36	0.17	1.02	0.20	0.65	0.24
담배	--	1.00	4.00	2.00	3.00	--	--	--	--	--	--
방직	0.68	0.94	1.14	1.45	0.68	1.08	0.34	1.36	0.15	0.66	0.34
의류	0.71	0.97	0.94	1.49	0.92	1.23	0.36	0.63	0.05	0.68	0.50
가죽제품	0.95	0.79	0.97	1.55	0.60	1.06	0.43	0.98	0.17	0.59	0.38
목재·죽제품	0.50	0.77	1.17	1.37	0.65	1.63	0.40	0.94	0.15	0.74	0.39
가구·장치물	0.77	1.06	1.01	1.15	0.90	1.33	0.33	0.76	0.17	0.77	0.37
종이·제품	0.71	0.87	1.07	1.20	0.56	1.30	0.25	1.33	0.31	0.77	0.48
인쇄출판	0.44	1.09	1.18	0.91	0.61	1.19	0.20	1.37	0.15	0.61	0.38
산업용화학	0.55	0.89	1.74	1.47	0.79	1.10	0.33	0.86	0.36	0.48	0.16
화학제품	0.56	0.86	1.61	1.72	1.20	1.00	0.28	0.86	0.27	0.53	0.22
석유·정제	1.35	1.04	1.48	0.56	0.39	0.73	0.12	0.86	0.81	0.85	0.41
플라스틱	0.75	0.77	1.36	1.50	0.91	1.07	0.34	1.00	0.18	0.46	0.31
고무제품	0.81	0.96	1.15	1.37	0.84	1.23	0.36	1.09	0.12	0.70	0.34
비금속광물	0.80	0.86	1.19	0.32	0.91	1.18	0.25	0.87	0.23	0.50	0.28
기초금속	0.85	1.14	1.27	1.15	0.57	1.01	0.27	1.08	0.38	0.73	0.44
금속제품	0.82	0.85	1.37	1.13	0.77	1.17	0.25	1.08	0.18	0.74	0.36
기계·장비	0.73	1.05	1.39	1.26	0.75	1.12	0.19	0.92	0.12	0.78	0.36
전기·전자	0.62	0.98	1.54	1.42	0.97	1.03	0.37	0.86	0.15	0.69	0.31
운수장비	0.79	1.04	1.29	1.29	0.68	1.06	0.23	1.08	0.12	0.78	0.36
정밀기계	0.43	1.03	1.46	1.83	1.02	1.27	0.26	0.84	0.09	0.64	0.27
잡제품	0.62	0.83	1.20	1.44	0.91	1.27	0.38	0.90	0.15	0.59	0.37
제조업평균	0.70	0.92	1.28	1.29	0.79	1.18	0.28	1.03	0.17	0.69	0.35

註：중요한 순서대로 최고 4점, 최하 1점으로 평가

資料：〈附表 6〉과 同一

KIEP 發刊資料 案内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집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집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12)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侑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鉉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 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鉉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 세미나資料

- | | |
|--|-------|
|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 共同 |
|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 朴泰鎬 編 |
|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 吳勇錫 編 |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Jin-Soo Yoo,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政策資料 94-05
轉換期的 臺灣經濟
— 產業構造調整을 중심으로 —

1994年 2月 26日 印刷

1994年 2月 28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 942-1番地 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書 禁 止